

화순에 헬스케어연구소 준공... 생물산업 탄력

국비 등 291억 들여 3년만에 완공
의약품·화장품 등 인증·평가 지원

전남도가 11일 화순에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헬스케어연구소 준공식을 갖고 도내 비고우위 생물자원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생물의약 등 헬스케어 소재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3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완공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박준영 전남지사를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관, KTR 임직원, 대학 및 국내·외 연구원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

KTR 헬스케어연구소는 국비 등 291억원을 투입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부지 3만4000㎡, 연면적 8500㎡,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행정동과 시험연구동, 동물시험동을 갖췄다.

2010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의 협력으로 설립돼 기존 경기도 김포에 있던 KTR 안전성평가본부가 화순으로 이전하면서 헬스케어연구소로 기관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3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완공됐다.

헬스케어연구소는 제품 개발에서 해외진출까지 헬스케어 소재산업 모든 주기에 걸친 인증과 평가 지원을 한다.

특히 의약품과 식품, 화장품, 화학물질, 농약, 생활용품의 효능평가와 독성 등 안전성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국내·외 인증을 통한 기업지원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전남에서 다양으로 생산되는 비파·울금·헛개·황칠·멸꽃 등의 기능성 고부가치화와 헬스케어 소재산업 제품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KTR은 이번 연구소 준공을 계기로 기존 김포 헬스케어연구소 직원 60명

과 시험장비를 이전하고 2015년까지 132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앞으로 전후방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200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 100개 기업 유치, 4000억원의 신규시장 개척 등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윤순선 전남도 신성장동력과장은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영어 배우는 초등생들

지난 10일 오후 강진군이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영어체험교실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는 중앙초등학교 학생들, 군은 지난 2011년 강진동초를 시작으로, 지난해 중앙초, 신전초, 성전초, 올해 군동초, 마령초, 도암초, 병영초 등 모두 8개 학교에 2억7000만원을 지원해 영어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경진=남철희기자 choul@

“전차포·예비군 사격장 이전해 달라”

담양군, 육군기계화학교에 건의

담양군은 11일 “대전면에 있는 전차포 사격장과 수복면 예비군사격장을 이전해 줄 것을 육군기계화학교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육군기계화학교 측은 훈련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민원이 잇따르자 소음방음벽과 피탄 방지벽을 설치했으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이 커져 주민들은 1993년 사격장 이설대책 위원회를 꾸려 학교 측과 협의해 왔다.

지난 2003년에는 민·관·군 합동으로 사격장 이전 관련 협의회를 구성해 인근 지자체와 이전방안을 논의해 왔다. 기계화학교 측은 최근 대체 부지가 선정되며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

토한다는 방침이어서 이전이 성사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수복면에 있는 예비군 사격장은 사격 1주일 전 일정을 인근 마을과 SMS 문자발송 등으로 통보하고 훈련 일에 경고방송을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실거리 사격장 주변에 400m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해마다 주민을 초청, 설명회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근 주민들은 소음 피해와 안전사고의 위험을 호소하고 있다.

담양군은 육군기계화학교와 국방부에 전차포 사격장 이전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고 국회에도 사격장 이전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담양=정재근기자 jjg@kwangju.co.kr

전북

해수욕장 피서객 건강 파수꾼 떴다

부안, 이동진료반 배치

부안군이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의 건강유지와 안전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군은 11일 “여름철 개장하는 해수욕장에 응급상황 발생을 대비한 이동의료지원반을 편성, 운영하고 경포·위도 해수욕장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이동의료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동의료지원반은 보건소 직원 52명이 교대 근무하는 형태로 해수욕장 폐장 시까지 운영되며 비상약품, 소독물품 등을 비치, 피서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실제로 도항해수욕장은 오는 15일

부터 8월25일까지 72일 동안 의료지원서비스가 제공되며, 특히 구급차를 고정, 배치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게 된다.

변산해수욕장의 경우 다음달 7일부터 8월19일까지 37일 동안 이동의료지원반을 편성, 운영하고 경포·위도 해수욕장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이동의료서비스를 실시한다.

또 기온 상승 등에 따라 수인성 전염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의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군은 변산·고사포·경포·상록·모향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방역기동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부안=정재용기자 jjy0681@

순창 군립도서관 17일 첫삽

2층 규모 내년 초 개관... 국비 10억 지원 건의

순창군은 순창을 순화리 226번지(옛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2162㎡ 부지에 연면적 1247㎡,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다.

1층에는 어린이자료실과 수유실, 종합자료실, 북카페가, 2층에는 문화체험교실, 열람실, 사무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군은 11일에도 안전행정부를 방문해 총사업비 36억8200만원 중에서 국비 14억원과 도비 8억원을 제외한 군비 14억8200만원 중 1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기본계획을 수립, 11월 건축설계공모를 거쳐 당선된 작품은 도서관의 기능을 잘 갖추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가 강조됐으며, 신재생에너지 활용해 태양광시스템과 LED 조명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쾌적한 독서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전문기관 컨설팅 자문도 받아 설계에 반영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군립도서관은 과거처럼 단순히 책만 읽는 장소가 아닌 지식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지역커뮤니티센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나후된 독서문화 진흥은 물론 도시와 농촌 간 문화 불균형 해소로 문화적 행복지수 향상과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립도서관은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공공도서관 확충 사업으로 올해 말 준공,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순창=이동희기자 dhee@

풍천장어와 함께하는 복분자·수박 축제

21~23일 고창 선운산도립공원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간 전북 고창군 선운산도립공원에서 ‘풍천장어와 함께하는 2013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가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행사장에 미니 수박밭을 조성, 안대를 쓰고 하는 ‘수박 서리 체험’을 비롯해 복분자 물이 가득 찬 미니수영장에서 수박절모를 쓰고 풍천장어를 잡는 ‘장어일병 구하기’ 등 다양한 체험거리로 채워졌다.

고창수박으로 만든 시원한 화채, 복분자로 만든 주스, 한과, 젤리 등 다양한 제품을 재미 있는 게임을 통해 맛 볼 수 있으며, 복분자 생과 및 명품수박,

복분자주, 풍천장어 등 무료 시음·시식행사 등도 잇따라 열린다.

이 밖에 날씨노노 누구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복분자 요강 컵링을 비롯해 복분자 양궁, 수박 사격 등 스포츠를 활용한 오락 프로그램이 준비되며, 행사장 주변에 마련된 원두막에서 시원한 복분자 주스와 수박화채를 먹으면서 다채로운 공연을 감상하는 여유로운 시간도 누릴 수 있다.

고창특별산물 판매장에서는 복분자 생과를 비롯해 복분자주, 복분자즙, 한과 등 다양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친환경 쌀 생산 우렁이 종파

지난 10일 오후 고창군으로부터 우렁이 종파를 공급받고 있는 친환경 쌀 생산 농민들. 군은 무농약·유기농 인증을 받은 624ha의 친환경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강진산 청정 김 명품화 나섰다

전남해수원, 상표 등록 출원

강진 지역은 616ha 어장에서 4300여 책(1책 길이 80m, 폭 2m)을 시설, 연간 50만 속의 김을 생산하고 있다. 썰물때 김발이 드러나고 밀풀때 잡기는 이른바 지주식(支株式) 방법으로 김을 양식하고 있다. 조류 간만의 차 때문에 김발이 하루 12시간 이상 노출돼 맛과 향이 뛰어난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전남해수원)은 11일 강진산 청정 김을 ‘해로달인 김’ 상표로 특허청에 등록 출원을 마쳤다고 밝혔다.

전남해수원은 또 강진군이 추진 중인 상표 디자인 사업과 연계해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기로 했다. ‘해로달인 김’은 염산 처리를 하지 않고 햇빛으로만 달인 친환경 김이다.

전남해수원은 명품화에 나선 것은 지역을 대표할 만한 브랜드가 없어 제값을 받지 못하는 데다 해남, 완도 등 다른 지역산으로 둔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강진 지역은 616ha 어장에서

4300여 책(1책 길이 80m, 폭 2m)을 시설, 연간 50만 속의 김을

생산하고 있다. 썰물때 김발이 드러나고 밀풀때 잡기는 이른바 지주식(支株式) 방법으로 김을 양식하고 있다. 조류 간만의 차 때문에 김발이 하루 12시간 이상 노출돼 맛과 향이 뛰어난다.

과용구 전남해수원 강진지소 장은 “해로달인 김의 친환경 생산 증명을 위해 정기적으로 어장 환경을 관리하고 고급 소비자 공략을 위한 신품종 개발에도 노력하겠다”며 “재래식 수제 김과 현대식 가공 김 두 가지 제품 생산 방식을 가능해 전통과 현대 기술을 융합한 명품 김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죽령산 편백숲서 아토피·천식 예방 체험

장성군보건소 프로그램 운영

지오스민이 함유된 흙을 밟으며 울창한 편백나무 숲에서 뿐어져 나오는 피톤치드를 만끽했다.

또 보건소에서 준비한 아토피·천식 예방교육을 비롯해 천연비누 만들기 등을 체험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군은 오는 7월 월평초·서삼초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8월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흙길이 조성된 도내 휴양림 6곳의 토양을 대상으로 아토피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지오스민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장성 죽령산이 136.1㎍/kg로 도내 휴양림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단신

남원 성내마을 노인건강 프로그램 인기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에서 추진하는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사업 대상마을 중 하나인 인월면 성내마을에서 이달부터 매주 2차례 2시간씩 노인건강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실시해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마을 주민의 연령대가 노인층에서 청년층 까지 다양해 참석률도 높다.

/남원=백금석기자 bs8787@

부안, 오디·양파 수확농가 일손돕기

부안군은 지난 10일부터 30일까지 농촌일손돕기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오디와 양파를 수확 중인 농가를 찾아 일손 돋기를 대대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특히 오디와 양파는 농작업이 기계화된 벼농사에 비해 한 알 한 알 정성을 다해야 하는 만큼 많은 일손이 필요하다. 군은 이에 따라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읍·면, 지역농협에 일손돕기 지원 창구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맞춤형 인력지원에 나섰다. 유관기관·단체의 경우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식사, 작업도구 등을 각자 준비함으로써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부안=정재용기자 jjy0681@

전주, 183개 상수도 시설물 통수검사

전주시 맑은물 사업소에서는 11일부터 전북혁신도시 입주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31km에 달하는 상수도관 및 제수변 등 183개의 상수도 시설물에 대하여 대대적인 통수검사와 청소를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올해부터 입주가 예정

전주시의회, 완주군과 통합 21일 결정

전북 전주시의회가 완주군과 통합 여부를 21일 결정하기로 했다.

이명연 전주시의장은 11일 기자간 담회에서 “제301회 임시회가 열리는 21일 ‘전주·완주 통합’ 여부